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의 활용 방안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방 효 수

중학교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의 활용 방안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방 효 수

인 준 서

방효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요즘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발달과 더불어 적은 공간 안에 많은 글을 빠르게 적기 위해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띄어쓰기를 잘못할 경우 그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른 띄어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지도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띄어쓰기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교육 현장의 띄어쓰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띄어쓰기 지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살펴본 후,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해보고, 교육현장에서의 띄어쓰기 지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띄어쓰기 학습의 중요성과 함께, 띄어쓰기 학습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그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 국어사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대표적인 인터넷 국어사전들을 비교·분석해 보며 효과적인 띄어쓰기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이 중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유용하다 할 수 있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실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띄어쓰기 교육은 자칫 학생들에게 띄어쓰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한 두 번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띄어쓰기 여부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인

터넷 사전을 활용하여 해당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인한다면 띄어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이 많은 한계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현 교육과정에서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Ⅱ. 교육 현장의 띄어쓰기 교육의 문제점 ····· 4
1. 중학교 띄어쓰기 지도의 기준인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분석 · 4
2. 교육과정 분석 ····· 11
2.1. 문법 관련 내용 ····· 11
2.2. 띄어쓰기 관련 내용 ····· 15
3. 교육현장의 문제점 ····· 17

Ⅲ.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 활용의 필요성 ····· 20
1. 띄어쓰기 학습 변화의 필요성 ····· 20
1.1. 띄어쓰기 학습의 중요성 ····· 20
1.2. 띄어쓰기 학습의 성격 ····· 20
1.3. 교육과정의 변화 ····· 21
1.3.1. 7차 교육과정 ····· 21
1.3.2. 구성주의 ····· 26
1.3.3. 인터넷 활용 교육 ····· 27
2. 인터넷 국어사전의 필요성 ····· 29

Ⅳ. 인터넷 국어사전 분석 ····· 32
1. 인터넷 국어사전의 특징 ····· 32
2. 인터넷 국어사전 비교 ····· 35
2.1. 국립국어원 ····· 35
2.2. 네이버 ····· 37
2.3. 엠파스 ····· 39
2.4. 다음 ····· 41
2.5. 야후 ····· 42
2.6. 싸이월드와 네이트 ····· 43
2.7. 우리말 배움터 ····· 43
3. 인터넷 국어사전의 제한점 ····· 47

Ⅴ. 인터넷 국어사전을 이용한 띄어쓰기 교육의 실제 ····· 49
1. 목표 설정 ····· 49
2. 기본 학습 ····· 51
3. 탐구 학습 ····· 53
4. 발전 학습 ····· 54
5. 평가 ····· 56

Ⅶ. 결론 ····· 57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띄어쓰기를 잘못할 경우 그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띄어쓰기는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에서는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띄어쓰기는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띄어쓰기에 대한 학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 띄어쓰기는 국어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요즘 일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문장을 작성할 때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더욱 시급히 효과적인 띄어쓰기 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띄어쓰기의 지도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 띄어쓰기에 관한 기본 개념을 습득시킨 후,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하는 지도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사용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날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는 큰 부담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는 한다. 또한 띄어쓰기 지도라고 하면 우선 어렵고 재미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인터넷을 활용해 지도를 한다면 쉽고 재미있게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 완벽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거리들은 학생들에게 띄어쓰기가 어렵다는 인식만 더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이러한 논쟁사항들은 배제한 채, 띄어쓰기의 기본 개념만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띄어쓰기에 관한 기본 개념은 1988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나온 띄어쓰기 규정을 그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한글 맞춤법'이 우리 국어의 가장 규범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며, 현행 교과서에서도 띄어쓰기 개념과 관련하여 이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띄어쓰기 규정에 나온 11개의 항목만으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띄어쓰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어사전을 통해 그때그때 띄어쓰기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띄어쓰기는 이론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를 통해 자주 접하고 내면화시켜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국어사전을 통해서 띄어쓰기 사용법을 익히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일상생활 중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글을 접하고, 또한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도 인터넷 상에 많은 글을 작성하여 올리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사전은 인터넷 사용 도중 바로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을 읽거나, 자신이 글을 작성할 때 띄어쓰기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사전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는 각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전 사용과 검색의 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습과정

이다. 교실 학습의 제한된 시간을 보완하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인 학습자의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교수 방법의 한 예로서 인터넷 국어사전을 통한 학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제 Ⅱ장에서는 현재 교육 현장의 띄어쓰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겠다. Ⅳ장에서는 대표적인 인터넷 국어사전을 비교·분석해본 후, Ⅴ장에서는 이 중 가장 유용하다 할 수 있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바탕으로 띄어쓰기 교육의 실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Ⅴ장의 결론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동시에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Ⅱ. 교육 현장의 띄어쓰기 교육의 문제점

1. 중학교 띄어쓰기 지도의 기준인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분석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띄어쓰기 지도의 기준을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 규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띄어쓰기 규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한글 맞춤법 해설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을 서술하였다. 문교부 고시에 따라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한글 맞춤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1장과 제5장에서 띄어쓰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제2항에서, 제5장에서는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 총 11개 항목에서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띄어쓰기의 원리는 다음의 '한글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띄어쓰기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말에서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는 바로 각 단어를 띄어 쓰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써야 하며, 동시에 한 단어 안에서는 띄어 쓰지 말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앞서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띄어쓰기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항은 띄어쓰기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항인 것이다. 즉, 조사도 하나의 단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것만으로 홀로 쓰일 수 없고 항상 다른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의 문법적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에만 그치므로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단어와 조사 사이를 일일이 띄게 되면, 띄는 곳이 너무 많게 되어 독서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띄어 쓰는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 쓴다는 예외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크게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뉜다. 그 앞에 덧붙는 말이 없어도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 명사라고 하며,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앞 말에 의지하여 쓰이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

고 한다. 의존 명사는 비록 독립성은 없지만 명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단어로 취급한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는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어학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대부분이 의존 명사이므로, 이 항은 제42항에 대한 허용 규정으로 볼 수 있겠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이 조항은 《통일안》에서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 '만(萬)' 단위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게 되면 너무 많이 띄어 쓰게 되므로 독서의 능률을 고려하여서도 이와 같이 고치게 된 것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배·귤 **등등**
사과·배 **등속**	부산·광주 **등지**

이 항은 독서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의존 명사나 접속 부사를 띄어 쓰도록 한 규정이다. 의존 명사와 접속 부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본 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에 따르는 것이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 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이 항의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이며 허용 규정이다. 한 음절인 단어가 연속될 경우 띄어 쓰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독서 능률의 향상을 위해 의미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단어는 붙여 쓰도록 한 것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용언은 그 기능 면에서 크게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뉜다. 본용언은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을 말하며,[1]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붙여 본용언의 의미에 보조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뜻한다. 이러한 보조 용언은 보조 형용사와 보조 동사가 있는데 모두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조 용언을 반드시 띄어 쓴다고 하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와 본용언에 보조 용언이 연결된 경우의 구별이 쉽지 않으며,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 것이다.

1) 황경수(2007), 한국 국어 교육학회, 새국어교육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성은 부계의 혈통을 나타내고,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된 것으로 이 둘은 별개의 단어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안》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어 쓰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은 보통 한 글자로 되어 있어서 독립된 한 단어로 잘 인식이 되지 않고, 성과 이름을 붙여 쓰더라도 성과 이름은 쉽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붙여 쓰기로 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성과 호, 성과 자도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호칭어와 관직명은 보통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성을 붙여 쓸 경우 그것이 복성인지의 여부가 혼동될 염려가 있을 경우와 같이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띄어 쓰도록 하였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유 명사라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개의 단어가 나타나면, 각 단어가 결합하여 가리키는 하나의 대상이 잘 파악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전문 용어란 특정한 학문이나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럴 경우 의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으므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에서 띄어쓰기 지도의 기준을 두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띄어쓰기 관련 규정은 총칙의 제 2장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항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접하는 띄어쓰기의 다양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띄어쓰기에 대한 원칙과 허용 규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교육과정 분석

띄어쓰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법지식과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설명을 초등학생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도를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적어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띄어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1.문법 관련 내용

학생들에게 띄어쓰기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관련된 기본 문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띄어쓰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문법 관련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다.

[7-국-(2)] 음절의 개념을 안다. [7-국-(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교육과정 내용의 구체적 실현이라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살펴보면 띄어쓰기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음절과 어절, 낱말'의 개념을 알아보는 활동이 있다.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맞춤법 규정 제2항의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이 단원에서 지도하는 '낱말'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낱말과 단어를 동일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2] 또

2)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

한 띄어쓰기 규정 제46항에서는 ‘단음절’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 단원에서 ‘음절’을 공부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절’에 대한 개념 이해는 띄어쓰기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8학년의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의 조어법을 알도록 하고 있다.

[8-국-(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교과서에서는 ‘어근, 접사, 복합어, 합성어’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다. 띄어쓰기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자립해서 쓰이는 어근들로 이루어진 ‘손발’이나 ‘밤낮’과 같은 합성어는 비록 단어들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붙여 쓴다는 식의 설명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큰아버지’같은 합성어의 경우 ‘큰’과 ‘아버지’를 띄어 쓸 경우 그 뜻이 달라짐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9학년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9-국-(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9-국-(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과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맞춤법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중 띄어쓰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띄어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9학년 1학기 생활국어를 살펴보면 띄어쓰기에 관한 활동을 한 후 한글맞춤법 규정 중 띄어쓰기의 대원칙이라 할 제2항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 밖에도 관련 글을 제시한 후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을 찾도록 하는 활동들이 더 보이며,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교사가 불러주는 말을 받아쓰도록 하는 활동도 등장한다. 또한 모둠을 구성하여 주위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들을 찾는 활동도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충·심화에서는 띄어쓰기 관련 규정 3항이 더 등장하는데 단위명사와 관련된 제43항, '만(萬)' 단위로 수를 띄어씀을 언급한 제44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의존 명사나 접속 부사에 관련된 제45항이 그것이다. 이 단원은 이와 같이 중학교 교과서 중에서 띄어쓰기에 관해 가장 자세하며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9학년 2학기에는 띄어쓰기 지도와 관련이 깊은 문장의 구성과 품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9-국-(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9-국-(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교과서에서는 우선 '2. 문장의 구조' 단원에서 문장의 의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려준 후,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 대한 각각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개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도 8학년 교과서처럼 띄어쓰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이 단원을 통해 문장의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이 설 수 있어 이어 살펴볼 문장의 품사를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생활국어의 마지막 단원이라 할 수 있는 9학년 2학기의 '5. 품사의 종류'에서는 9품사인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에 대해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습한 '명

사’에 대한 이해는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와 관련된 규정인 제42항에서 보이는 ‘의존명사’와 제49항의 ‘고유명사’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 체언이라 하며,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는 용언,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 조사는 관계언이며, 감탄사는 독립언이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습한 ‘용언’이란 개념은 띄어쓰기 규정 제47항에 등장하는 ‘보조용언’을 설명할 때 유용할 것이다. 또한 ‘조사’에 관한 학습은 띄어쓰기 규정 제41항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단원은 띄어쓰기의 규정을 통해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단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배치를 살펴볼 때 9학년 2학기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 효과적 학습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 띄어쓰기 지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원은 9학년 1학기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띄어쓰기에 대해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문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띄어쓰기의 지도에 있어 가장 유용한 단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단원이 9학년 2학기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 띄어쓰기를 지도하기에 앞서 적절한 문법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5단원에 걸쳐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법과 관련된 각 단원이 멀리 흩어져 있으며, 서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문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누적성을 지닌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배치는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띄어쓰기 지도와 관련해서 볼 때 기본 개념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설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각 단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 관련 개념들을 환기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율적인 띄어쓰기의 지도를 위해서는 7,8학년 때 배운 문

법 지식들을 9학년 단원과 연관시켜 필요 개념들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한 교수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띄어쓰기 지도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품사'와 관련된 단원이 9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사의 재량에 의해 다소 앞당겨 지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2. 띄어쓰기 관련 내용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군데에서 띄어쓰기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보인다.

[7-쓰-(5)]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쳐 쓴다.

7학년 국어 교과서의 '7. 고쳐쓰기' 단원에서는 공중도덕과 관련된 글 한 편을 제시한 후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활동을 한 후 마지막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고치는 부분이 나와 있다. 보충·심화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활동 모두 띄어쓰기와 관련된 설명은 엿보이지 않으며, 교사용 지도서에서조차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답만 제시되고 있다.

8학년 과정에서도 고쳐쓰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8-쓰-(5)]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쓴다.

교과서의 내용은 7학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고칠 때 단어 수준과 문장 수준, 글 수준에서 해야 하는데 띄어쓰기는 '단어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간단히 언급한 부분이 있다. 또 다른 단원에서는 틀린 글을 고치는 활동이

있어 이 역시 간접적으로 글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띄어쓰기와 관련된 단원은 대부분 글을 고쳐 쓸 때 띄어쓰기가 틀린 곳을 찾는 활동에 그치고 있다.

띄어쓰기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단원은 9학년 1학기에 등장한다. 2단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를 보면, '(1)맞춤법의 기능'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할 곳에 표기를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 후 한글맞춤법 총칙 중 띄어쓰기의 대원칙을 제시한 제2장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정리 : 맞춤법 규정에서는 띄어쓰기를 **낱말은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글을 쓸 때에는 이 규정을 지켜 가며 바르게 써야 한다.

또한 이 단원의 '보충·심화'활동에서는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 제43항, 제44항, 제45항의 3항을 제시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보기>와 같이 고치는 다음의 활동이 등장한다.

⓵ 다음은 띄어쓰기 규정의 일부이다. 규정에 따라 <보기>와 같이 바르게 고쳐 보자. 1.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쓴다. 보기: 한개 → 한 개 ① 차한대→ ② 연필한자루→ ③ 신세켤레→

2.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보기: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① 삼백 십억 삼만 이천 칠백→

② 239억3654만2912→

3.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보기: 과장겸국장→ 과장 겸 국장

① 책상, 걸상등이 있다.→

② 청군대백군→

이는 교과서에서 띄어쓰기 지도의 기준을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그 규정을 제시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총 11항의 규정 중 4항만 제시하고 있어 매우 미흡하다.

이와 같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띄어쓰기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띄어쓰기 개념 이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법 지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교육현장의 문제점

이 절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띄어쓰기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3)]

현재 학교에서의 띄어쓰기 교육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강의식 수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띄어쓰기 교육에 있어 국어사전은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띄어쓰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의 2단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에서 띄어쓰기의 개념에 대해 직접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수업은 3~4차시 정도가 해당되며, 평가는 객관식 지필평가 위주로 1~2문제 정도로 이루어진다.

현재 띄어쓰기 교육의 문제점은 앞서 보았듯이 교과서 편성에 있어 체계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띄어쓰기 기본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법지식이 미리 학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띄어쓰기 지도에 관한 적절한 교수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띄어쓰기 교육 중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교육목표에서 띄어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과서가 띄어쓰기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띄어쓰기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띄어쓰기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띄어쓰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수업하기는 여러 환경상 어려우며, 수업 시수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이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에 있어 부담을 갖고 있다. 학생들 역시 띄어쓰기 교육을 어렵고 지루하게 여기고 있으며 크게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인터넷과 문자의 사용으로 점점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험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선 교사가 띄어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

3) 여기에서는 성호중학교, 고암중학교, 성주중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되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신희진(2005), 사전을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위한 적절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띄어쓰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의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 체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교사의 재량으로 띄어쓰기 지도에 앞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법지식은 단원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미리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띄어쓰기 교육은 한두 번의 지도로 끝날 성질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일상의 언어 습관에서 익숙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흥미를 갖고 띄어쓰기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 활용의 필요성

1. 띄어쓰기 학습 변화의 필요성

1.1. 띄어쓰기 학습의 중요성

띄어쓰기를 잘못할 경우 그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띄어쓰기는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띄어쓰기는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띄어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특히 요즘 일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문장을 작성할 때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현상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더욱 시급히 효과적인 띄어쓰기 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띄어쓰기 학습의 성격

현재 띄어쓰기 교육은 앞서 보았듯 학교에서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띄어쓰기 규정을 설명하고, 관련된 예를 통해 틀린 부분을 교정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띄어쓰기 교육은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3~4차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띄어쓰기 교육은 이렇게 몇 번의 수업으로 끝나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앞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제안한 대로 띄어쓰기 교육은 학교에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띄어쓰기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띄어쓰기에 대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자칫 띄어쓰기는 어렵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띄어쓰기의 여부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사전 등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1.3. 교육과정의 변화

1.3.1. 7차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1.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
2.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
3. 교육 내용의 사회적·개인적·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

이를 통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에서 특히 “정보사회에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보화 시대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학습 매체만으로는 학생들의 기대와 수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7차 교

4)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

육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매체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말-(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말한다.
【심화】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안다.

〔7-쓰-(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글을 쓴다.
【심화】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조사한다.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8-말-(4)〕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
【기본】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자료와 그 활용법에 대하여 알고, 이를 활용하여 조사, 관찰한 내용을 발표한다.
【심화】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전달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

〔9-읽-(6〕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
【기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이해도를 높인다.

【심화】°영상 매체나 청각 매체 등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토의한다.

이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앞으로 살펴볼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이란 기존의 학교나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교사가 강의식·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배우고자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사전의 활용'을 강조하게 된다.

[8-읽-(6)] 여러 종류의 사전을 글 읽기에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여러 종류의 사전의 활용 방법을 안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전을 활용한다.
【심화】°글을 읽는 목적에 맞게 여러 종류의 사전을 적절히 활용한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몇 단원에서 사전을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활동이 있다. 주목할 점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5. 글과 사전'의 한 단원을 할애해 사전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점이다. 이와 같이 국어교과서의 한 단원에서 온전히 사전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얼마만큼 7차 교육과정에서 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이며, 이는 곧 7차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입장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단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학습목표에서 첫째로 '사전의 종류와 그 쓰임을 안다.'라고 하여 사전의 종류가 다양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한된 사전만을 활용하지 않고 본 논문에서 활용할 인터넷사전 등 새롭고 다양한 사전에 대한 인식을 도울 수 있어 유용하다 하겠다. 또한 두 번째 학습목표에서는 '사전을 찾아 가며 글을 읽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여 사전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또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려는 본 논문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 단원의 '단원의 길잡이' 중 사전에 관해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 모르는 낱말이나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다. 사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낱말이나 구절들이 잘 풀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는 낱말이나 구절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사전이나 찾아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사전의 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
> 사전에는 낱말의 뜻을 풀이해 놓은 국어 사전을 비롯하여, 관용어 사전, 속담 사전, 동의어 사전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 백과 사전이나 영화 사전, 시사 용어 사전, 인물 사전, 문학 용어 사전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모아 놓은 전문 사전도 있다. 따라서, 사전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찾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잘 살펴본 다음, 이에 적합한 종류의 사전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
> 사전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지식 자원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여러 종류의 좋은 사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항상 사전을 곁에 두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는 습관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사전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항상 사전을 수시로 찾아보는 습관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터넷사전이야말로 수시로 관련내용을 찾을 수 있는, 사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은 매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사전을 찾아 가며 읽는 즐거움'의 본문 내용 중에는 인터넷사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보인다.

>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동식물 사전, 역사 사전, 경제 사전, 과학 사전, 건축 사전, 문학 사전, 음악 사전, 미술 사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 묶은 다양한 종류의 사전이 있다. 거기에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사전이나 시디(CD) 형태의 전자 사전까지 일반화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사전이 예전보다 더욱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사전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습활동에서 국어사전에 풀이된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학생들이 직접 국어사전을 이용해 모르는 단어를 찾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모둠별로 각종 사전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도 보인다.

주목할 것은 '보충·심화'에서 사진을 실어 두 가지 사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심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활용하는 사전과도 같은 사전이므로 학생들의 흥미도 돕고, 믿음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자세가 요구되는 다양한 사전의 활용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제시해 준 대로 정해진 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창조적인 활동을 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2. 구성주의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는 바로 구성주의에 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골자는 지식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 속에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의미의 구성이란 개인이 지식을 획득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외적 세계와의 상호 작용적 과정으로서의 의미의 구성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주의적 교육관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내용을 선택하고 학습하는 행위가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된다. 국어 교과의 특성상 특히 이러한 학습자 주체의 능동성은 중요하다.[5] 띄어쓰기 학습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구성주의에 있어 학습자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가 요구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 주체가 되어 학습 필요성의 진단, 학습 목표 설정,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적합한 학습 전략의 선택과 실행 및 학습 결과의 평가라는 전 과정을 주관함으로써, 자신에게 유의미한 지식을 구성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성공적인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 있어 교사가 항상 학습자에게 세부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또한 교사가 개별 학습자 각각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더더욱 불

5) 엄은영(2004),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국어의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가능하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려면 학습자는 자율적으로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의 선택과 같은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고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지하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학습하는 법을 터득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띄어쓰기를 학습하기 위해 사전은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국어사전의 검색과 활용의 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실 학습의 제한된 시간을 보완하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인 학습자의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가능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국어사전을 통해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가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사고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의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3. 인터넷 활용 교육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인터넷은 새로운 교육 매체의 하나로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통신망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전세계의 모든 정보를 학습자의 손 끝에 제공하며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음향 등을 이용한 생생한 학습 환경을 통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습 경험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인터넷 자원들은 아주 빠르게 갱신됨으로써 학습자들은 보다 최신의 정보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웹 자원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학습자가 자신이 편한 시간에 자신의 학습 속도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

며 먼 거리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도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인터넷 활용 교육의 장점이다. 인터넷은 또한 다양한 기술과의 결합도 가능하여 그 교육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활용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과 다른 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올려진 수많은 학습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 인터넷은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구성주의적 교육방식을 지원한다.
- 학습이 통합교과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인터넷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이나 전자회의 기능을 통해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다수, 다수 대 다수 등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 학습자는 풍부한 학습자료를 탐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가공하여야 하므로 학습자의 정보 탐색, 요약, 정리, 종합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 학습내용이 하이퍼텍스트 원리를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 중심의 주제별 학습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듯이 학교에서의 띄어쓰기 교육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띄어쓰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직접 제안하였듯이 학교보다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의 띄어쓰

---

6) Relan & Gillani(1997), 21세기를 향한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김영수,강명희,정재삼(역), 교육과학사

기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띄어쓰기 학습을 어렵고 재미없게 여기므로 흥미를 일으키면서, 쉽고 재미있게 여길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은 요즘 학생들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국어사전의 필요성

기존의 띄어쓰기 교육은 교과서를 통한 강의식 수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강의식 수업을 통한 띄어쓰기 교육은 수업시간이 몇 차시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띄어쓰기의 개념을 학습하는데 그칠 소지가 높다. 이와 같은 띄어쓰기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띄어쓰기를 어렵게 느끼고 흥미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 학습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흥미를 갖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띄어쓰기 학습을 위해서는 국어사전의 활용이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일상의 언어생활 중에서 띄어쓰기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국어사전으로 자주 확인하는 습관은 띄어쓰기의 사용능력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국어사전은 기존의 인쇄사전의 틀에서 벗어나 요즘에는 전자 수첩사전, CD-ROM 사전, 인터넷 사전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사전의 결합으로 이전보다 학습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과 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 국어사전은 띄어쓰기 학습에 있어 다른 사전이 가지지 못한 여러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요즘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터넷의 사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학생들은 E-mail이나 간단한 정보검색 등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나 은행·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장소뿐 아니라 대부분 집집마다 PC를 갖추고 있으며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사용은 그야말로 일상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띄어쓰기 학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 했을 때 인터넷을 통한 띄어쓰기 학습은 따라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강의식 수업을 통해 띄어쓰기의 개념을 익힌다면 학생들은 띄어쓰기에 대해 흥미를 잃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 띄어쓰기 학습에 능동적이지 않고, 학습 이후 지속적으로 띄어쓰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띄어쓰기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국어사전을 소개하고 그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스스로 띄어쓰기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전은 인터넷 사용 환경만 갖추어져 있다면 기존의 인쇄 사전에 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쉽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 도중에 항상 바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할 것이다. 사전의 사용에 있어 접근성과 검색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 쉬운 띄어쓰기에 있어 사전의 검색이 용이하지 않다면 쉽게 사전 사용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 도중 언제든 쉽고 빠르게 띄어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국어사전은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띄어쓰기는 특별한 학습에 의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띄어쓰기의 여부를 자주 확인하고, 쉽게 틀리는 띄어쓰기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그 사용 능력을 높이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사전을 확인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띄어쓰기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을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이버를 비롯한 몇 종류의 인터넷 국어사전에서는 예문만을 따로 목록별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이 띄어쓰기 여부를 자주 혼동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안내로 일단 인터넷 국어사전의 사용에 익숙해진 학생이라면 띄어쓰기 학습에 있어 능동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며, 이는 바로 7차 교육과정의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율적인 학습자의 자세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살펴볼 네이버 국어사전의 단어장을 이용할 경우 학생 스스로 사전을 편집·정렬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 역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창의적인 학습자'의 모습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국어사전은 기존의 띄어쓰기 학습 방법에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인터넷 국어사전 분석

1. 인터넷 국어사전의 특징

인터넷 사전을 기존의 인쇄사전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표 4-1> 인터넷 사전과 인쇄 사전의 비교

	인터넷 사전	종이 사전
표제어의 배열	단일한 표제어의 자모순 배열에서 자유로움	표제어의 자모순 배열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발음만 아는 경우 원하는 단어를 찾기 어려움
정보량	공간의 제약이 없어 방대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음	제한된 공간으로 정보의 선택 문제가 중요시 됨
정보의 형태	서술적 설명뿐 아니라 사진, 애니메이션,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제공됨	대부분 서술적 설명에 의존하며, 삽화 역시 공간적 한계로 삽입이 제한됨
사용자 친화성 (user-friendliness)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interface)[8)]가 갖추어져 학습자가 손쉽게 사전을 이용할 수 있음	학습자가 일일이 사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장치가 없음
검색의 속도	하이퍼링크 기능과 잘라 붙이기 기능(copy and paste facility)이 있어 빠른 정보 검색이 가능함	상대적으로 검색 속도가 느리며, 검색한 정보에 대한 정교화된 검색이 요구될 때,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해야 함

7) 김서희(2005), 인터넷 중국어 사전의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스톱 (one-stop) 검색	한 번에 다양한 사전을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	각각의 사전마다 따로 검색하여 참고해야 함
퍼지 검색[9]	퍼지 검색이 가능하여 불확실한 단서로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음	퍼지검색 기능 없음
정보 표시	학습자의 편의에 따라 정보 탐색 결과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정보 표시 형태가 고정되어 변경 불가능
메타 언어[10]	쉽게 풀어쓴 메타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	축약어, 기호 등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사용 언어의 문형	정의와 설명에 전문체(電文體)[11]를 사용할 필요 없음	공간의 절약을 위해 전문체를 사용
비용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졌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함	사전을 구입해야 함
상호 협동 과정	인터넷 상에 자신이 얻은 정보를 저장 가능하며, 인터넷 상의 학습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사전 외적으로 상호 협동할 수 있는 공간 없음
업데이트	최신 자료의 업데이트가 쉽게 이루어짐	새롭게 증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8)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란 사용자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말한다.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명령을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command-line interface)라고 하고, 메뉴 선택에 의한 명령으로 작동시키는 것을 메뉴 방식 인터페이스(menu-driven interface)라고 하며, 광 펜, 마우스, 컨트롤 볼, 조이스틱 등의 위치 지정 도구를 사용하여 도형 표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라고 한다.

9) 퍼지검색(fuzzy search)기능이란 찾고자 하는 정보의 전문적인 용어, 저장 장소 및 철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원하는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능을 말한다

10) 사전편찬에 있어서 이론적·실제적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용어를 제정하고 공

위와 같은 인터넷 사전의 장점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인쇄 사전은 단일한 정보 제시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특정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와 관계된 다른 표제어를 찾아야 할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단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인터넷 사전의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때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정보가 제시되어 학습자의 흥미와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원스톱(one-stop) 검색 및 퍼지 검색(fuzzy search) 기능은 좀 더 편리한 검색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정교화에 도움이 된다. 사전은 원래 학습자의 정교화에 도움을 주는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인터넷의 링크 기능이 더해지면 검색한 단어와 관계된 정보들에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전 외의 인터넷 자료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훨씬 자유롭게 정교화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이 검색한 정보를 재조직할 수 있다. 인터넷 사전은 학습자에게 개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단어장' 기능이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단어장'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장, 편집, 인쇄, 암기, 정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는 인터넷 사전을 사용하면서 검색한 단어를 자신의 단어장에 저장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편집하여 선택, 인쇄할

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메타언어란 바로 그런 용어와 용어의 사용법을 뜻한다. 표제어, 용례, 어원 등은 모두 사전의 메타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섭(1990), 현대 사전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사전편찬학연구」 참고

11) 조사, 조동사, 접속사, 타동사 등이 생략되어 두 낱말(二語)이 이어지는 문장 위주로 된 문형을 전문체(telegraphese)라고 하는데, 이는 전보의 문체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수 있다. 또 단어를 저장한 횟수나 암기 여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어 자신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단어장의 편집기능은 특히 자신만의 사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신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논리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 사전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 그것도 현실 상황의 맥락과 일치하는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이러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의미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적으로 띄어쓰기 학습을 주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인터넷 사전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수적인 사전과 인터넷 환경의 인지적 도구로서의 특성이 결합하여 학습효과에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가지고 올 수 있다.

2. 인터넷 국어사전 비교

2.1.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어문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는 기구이다. 1991년 초에 국가의 어문 정책 관련 연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12] 2004년 말에 국가의 어문 정책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국립국어원'으로 발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동안 각종 어문 규정을 제정하고, 어문의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질서를 세우고자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역할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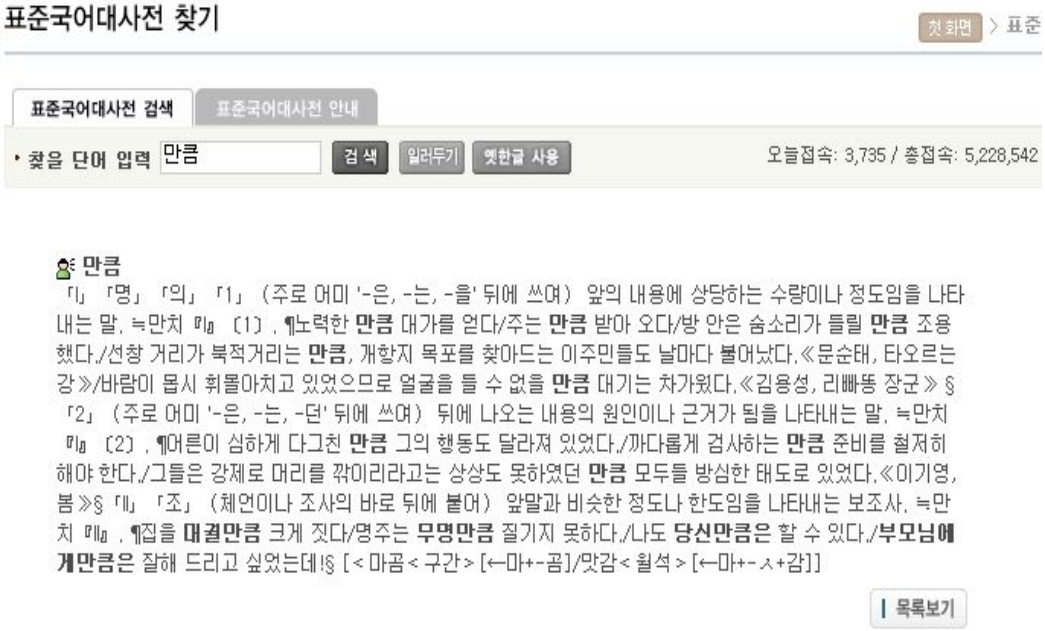
12) 개원 당시의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이었다

해왔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은 그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인터넷 사전을 언급하면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글맞춤법 규정의 검색도 가능하여 띄어쓰기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며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도 참고할 수가 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컨텐츠를 제공 받아서 탑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에 비해 사전의 설명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단어장 등록이나 인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앞의 단어와 띄어서 쓸 경우에는 '~뒤에 쓰여', 앞의 단어와 붙여 쓸 경우에는 '~뒤에 붙어'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 띄어쓰기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품사를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각 단어의 품사를 확인하며 이 설명을 참고한다면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만큼'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그림 4-1>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 검색 결과

2.2. 네이버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답게 국어사전에 있어 매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전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탑재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사전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용 도중 미니사전[13] 이나 툴바[14] 등을 활용하면 네이버 국어사전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뒤에서 살펴볼 엠파스에서도 제공이 되는데, 네이버에

13) 미니사전창은 간편하게 단어검색을 할 수 있는 작은 사전을 말한다. 미니사전창은 인터넷 사용 도중 사전검색이 필요한 경우 'Alt키+ 마우스 왼쪽 버튼'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네이버 사전 검색'을 선택하여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어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사전이용이 가능한 기능이다.

14) 윈도우나 웹 브라우저 등의 응용 프로그램 가운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따로 모아 아이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툴바를 사용할 경우 사용 프로그램의 이용이 손쉬우며, 사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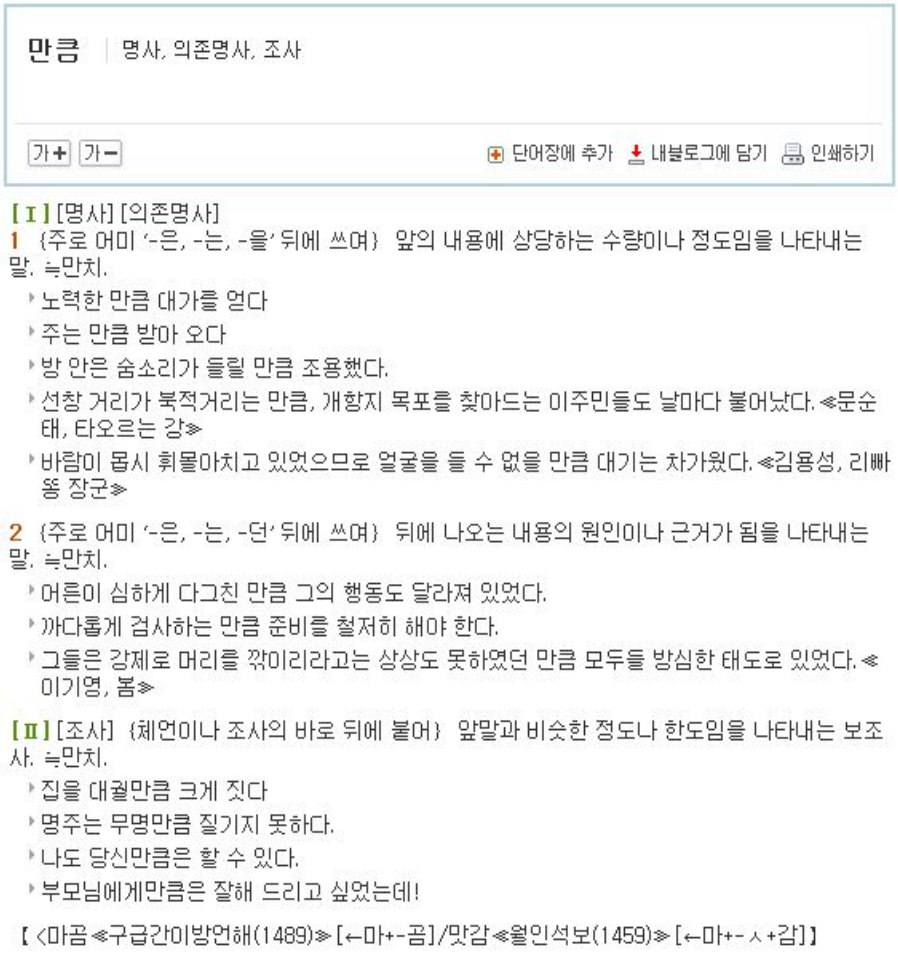
서는 이와 함께 위젯사전[15] 기능도 있어 인터넷 사용 도중 뿐 아니라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다가도 바로 국어사전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어장 기능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후에서도 단어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단어의 정렬·인쇄 기능만 가능할 뿐이다. 이에 비해 네이버에서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이 선택한 단어를 별도로 저장·편집·관리할 수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단어장에는 우선 '편집기능'이 있어 사전의 내용과 순서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정렬기능'이 있어 보기 쉽고 암기하기가 편하도록 단어목록을 정렬할 수 있다. 또한 단어를 저장한 후 암기 여부에 따라 '미암기/암기완료'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고, 미암기된 단어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필요한 단어들만 선택하여 인쇄보관함에 담아 인쇄할 수도 있어서 중요하거나 암기가 필요한 단어는 출력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어사전의 단어장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것은 네이버에서 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어가 학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예문만 별도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띄어쓰기 여부에 대해 자주 혼동이 오는 단어의 다양한 예를 살펴봄으로써 그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한글맞춤법 규정 항목도 제시하고 있어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하고자 할 때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네이버의 국어사전을 이용해 '만큼'을 찾아본 결과이다.

---

15) 위젯사전이란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하다가 웹 브라우저를 열지 않고도 바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뜻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전적 의미로 '적용, 응용, 이용'이라고 해석되는데 컴퓨터 상의 어플리케이션이란 운영체제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네이버의 국어사전 검색 결과

2.3. 엠파스

엠파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탑재하여 국어사전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같이 미니사전, 툴바, 사전검색창 등 국어사전 검색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예문 검색 결과도 제공하고 있어 띄어쓰기 여부가 자주 혼동되는 경우 여러 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띄어쓰기의 여부를 확실히 인지

할 수도 있다. 단어장 기능도 있지만 영어사전과 일본어사전에만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사전은 단어장을 활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어 검색 후 인쇄하기는 가능하지만 단어장이 없어 네이버처럼 필요한 단어들만 모아 인쇄하는 묶음 인쇄가 불가능하다.

엠파스 국어사전에서 '만큼'을 찾아보면 네이버와 똑같은 검색결과가 나온다.

만큼 [명사] [의존명사] [조사]

[I] [명사] [의존명사]

1.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만치 .

-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
- 주는 만큼 받아 오다
-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 선창 거리가 북적거리는 만큼, 개항지 목포를 찾아드는 이주민들도 날마다 불어났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 바람이 몹시 휘몰아치고 있었으므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대기는 차가웠다. ≪김용성, 리빠옹 장군≫

2. (주로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만치 .

-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
-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그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만큼 모두들 방심한 태도로 있었다. ≪이기영, 봄≫

[II] [조사]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치.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
-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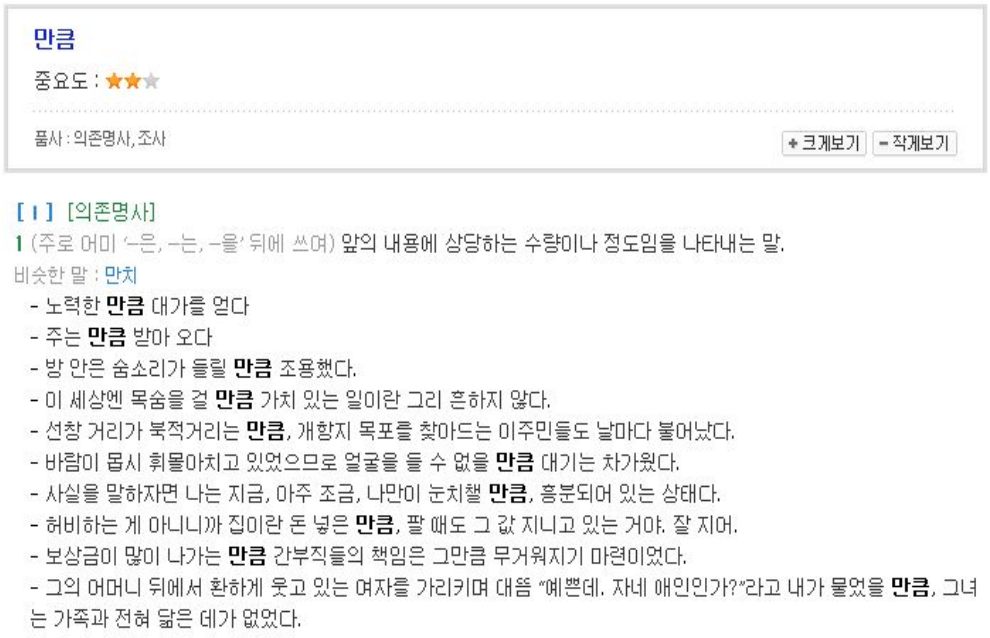
【 <마곰 <구간> [←마+-곰]/맛감 <윗석> [←마+-ㅅ+감]】

<그림 4-3> 엠파스의 국어사전 검색 결과

2.4. 다음

다음 역시 네이버, 엠파스와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었다. 국립국어원이나 네이버와 같이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도 제공하고 있어 필요할 때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예문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이버, 엠파스보다 예문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상세히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어장을 영어사전, 한자사전에만 제공하고 있으며, 엠파스와 마찬가지로 국어사전에는 단어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영어사전 등 외국어사전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어사전은 학습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음의 국어사전을 이용해 '만큼'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예문이 많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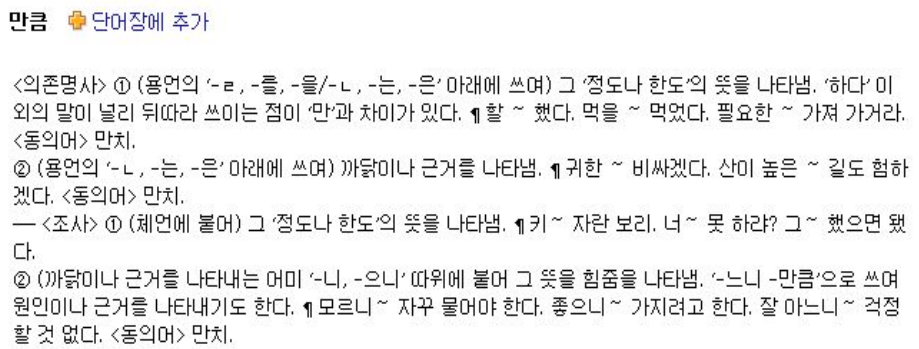
<그림 4-4> 다음의 국어사전 검색 결과

2.5. 야후

야후만 다른 포털사이트와 다르게 '표준국어대사전'이 아닌 'YBM Sisa.com'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어에 대한 설명이 다른 사이트의 국어사전의 설명과 다르며,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 '~에 붙어', 혹은 '~따위에 붙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띄어 쓰는 경우에는 '~아래에 쓰여', '~따위의 아래에 쓰여'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이해에 어려움은 없으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뒤에 붙어', 띄어 쓰는 경우에는 '~뒤에 쓰여'와 같이 일관된 설명이 아니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탑재한 다른 사이트에 비해 띄어쓰기 여부를 확인할 때 다소 혼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야후에서는 네이버와 같이 국어단어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에 비해 그 기능이 매우 간략하여 검색한 단어의 정렬기능과 인쇄기능만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인터넷 국어사전들은 모두 출처가 '표준국어대사전'이기 때문에 그 설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YBM Sisa.com'에서 컨텐츠를 제공받은 야후에서는 '만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큼 단어장에 추가

<의존명사> ① (용언의 '-ㄹ, -를, -을/-ㄴ, -는, -은' 아래에 쓰여) 그 '정도나 한도'의 뜻을 나타냄. '하다'이외의 말이 널리 뒤따라 쓰이는 점이 '만'과 차이가 있다. ¶ 할 ~ 했다. 먹을 ~ 먹었다. 필요한 ~ 가져 가거라. <동의어> 만치.
② (용언의 '-ㄴ, -는, -은' 아래에 쓰여)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냄. ¶ 귀한 ~ 비싸겠다. 산이 높은 ~ 길도 험하겠다. <동의어> 만치.
— <조사> ① (체언에 붙어) 그 '정도나 한도'의 뜻을 나타냄. ¶ 키~ 자란 보리. 너~ 못 하랴? 그~ 했으면 됐다.
②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 '-니, -으니' 따위에 붙어 그 뜻을 힘줌을 나타냄. '-느니 -만큼'으로 쓰여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 모르니~ 자꾸 물어야 한다. 좋으니~ 가지려고 한다. 잘 아느니~ 걱정할 것 없다. <동의어> 만치.

<그림 4-5> 야후의 국어사전 검색 결과

2.6. 싸이월드와 네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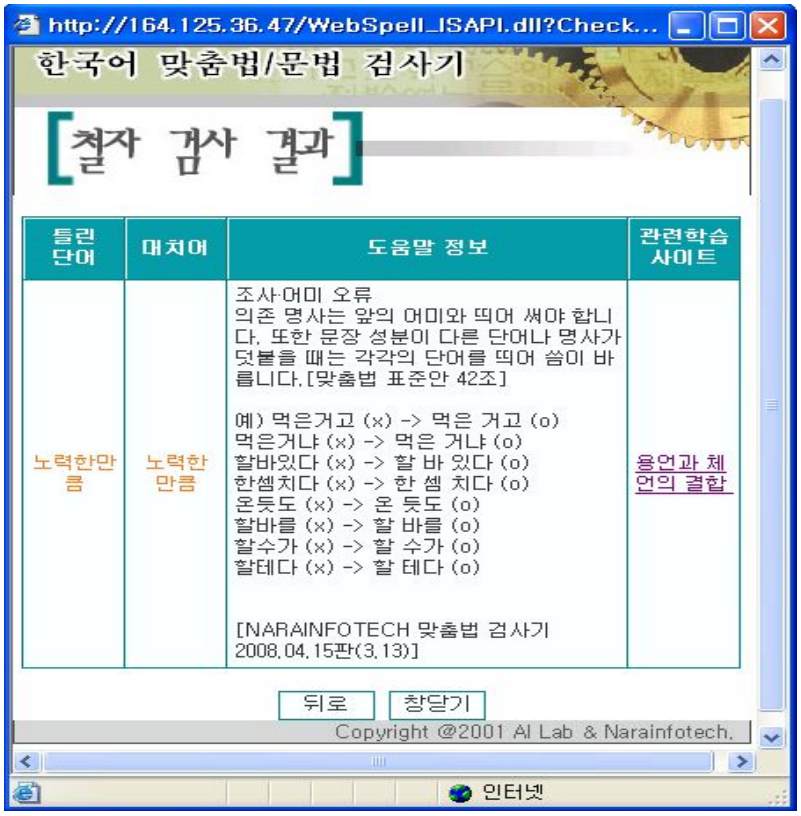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포털사이트 외에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로 싸이월드와 네이트 등이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국어사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국어사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엠파스 국어사전에 링크가 되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기능은 엠파스 국어사전의 기능과 같다 하겠다.

2.7. 우리말 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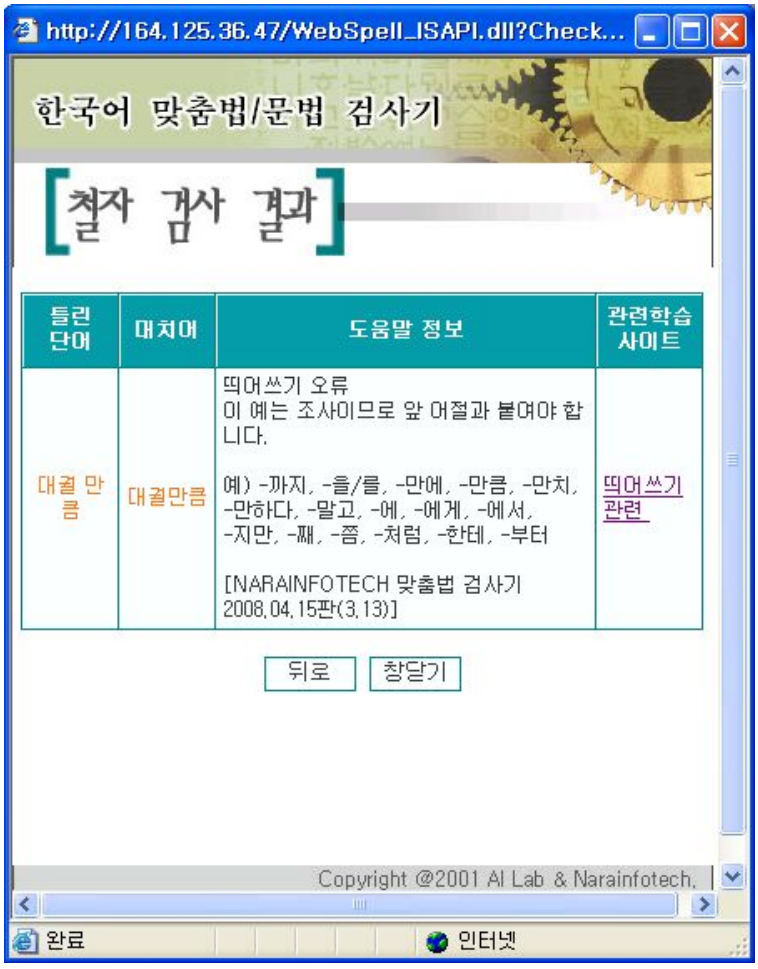
국어 교육 사이트인 우리말 배움터에서는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개발하여 학습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맞춤법과 문법의 틀린 부분을 교정해주며 간단한 설명도 제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원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국가지정연구실이 협력하여 2007년 6월까지 만들었으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과 (주)나라인포테크가 공동으로 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말 배움터의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문장만 입력하면 맞춤법과 문법의 틀린 부분을 자동으로 교정해주기 때문에 띄어쓰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매우 편리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성은 바로 학습자의 수동성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학습자가 작성하려는 문장을 입력만 하면 문장 전체를 교정해주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정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어 문장 작성에 있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띄어쓰기는 보통 해당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면 그 후에는 그 단어의 띄어쓰기 사용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이 띄어쓰기를 자주 틀리는 해당 단어를 사전을 통해 검색한 후 네이버 단어장에 저장을 해두면 자신이 띄어쓰

기에 혼동을 느끼는 단어의 목록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실히 암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문장의 띄어쓰기 여부를 단지 확인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인터넷상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남길 수가 없다. 또한 문장 전체의 맞춤법과 문법을 자동으로 교정해주기 때문에 가끔 틀린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림 4-6>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의 검색 결과 1



<그림 4-7>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의 검색 결과 2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이용해 '만큼'의 띄어쓰기 여부를 검색한 결과이다. 첫 번째는 '노력한만큼 대가를 얻다.'라는 문장을 검색해 본 결과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만큼'은 의존명사로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이에 대한 네이버 국어사전의 검색 결과를 찾아보면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만치'라고 나와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에서는 '조사-어미 오류, 의존 명사는 앞의 단어와 띄어 써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

느 부분이 어미이고, 어느 부분이 의존 명사인지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띄어쓰기나 문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며, 특히 '조사-어미 오류'라는 표현은 많은 학습자가 어려움과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등장하는 '집을 대궐 만큼 크게 짓다.'라는 문장에 대한 검색 결과에서도 '이 예는 조사이므로 앞 어절과 붙여야 합니다.'라는 설명에서 '만큼'이 조사임을 밝히고 설명을 덧붙였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예문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문장에서 '만큼'이 활용되는 다양한 예를 보여주었더라면 '만큼'이란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우리말 배움터'나 '국립국어원' 같은 몇몇 국어 관련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다시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클릭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검색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 국어사전은 미니사전창과 툴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문장을 작성하다가 띄어쓰기 여부가 혼란스러울 때 바로 검색이 가능하여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학습자들이 맞춤법과 문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전의 장점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고 잘 발전시킨다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2> 인터넷 국어사전 비교

	사전 콘텐츠	단어장	한글맞춤법	예문목록 별도제시	붙여 쓸 때	띄어 쓸 때	미니 사전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없음	제공	없음	~뒤에 붙어	~뒤에 쓰여	없음
네이버	표준국어 대사전	제공	제공	제공	~뒤에 붙어	~뒤에 쓰여	제공
엠파스	표준국어 대사전	없음	없음	제공	~뒤에 붙어	~뒤에 쓰여	제공
다음	표준국어 대사전	없음	제공	제공	~뒤에 붙어	~뒤에 쓰여	없음
야후	YBM Sisa.com	간단 제공	없음	없음	~(따위)에 붙어	~(따위의) 아래에 쓰여	없음

3. 인터넷 국어사전의 제한점

인터넷 국어사전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이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인터넷 사용은 일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나 경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드물긴 하지만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또한 인터넷 국어사전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에만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제 인터넷 사용이 일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사용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상 언어생활 도중 수시로 사전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용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국어사전의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바람직한 인터넷 사전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시키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인터넷 국어사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올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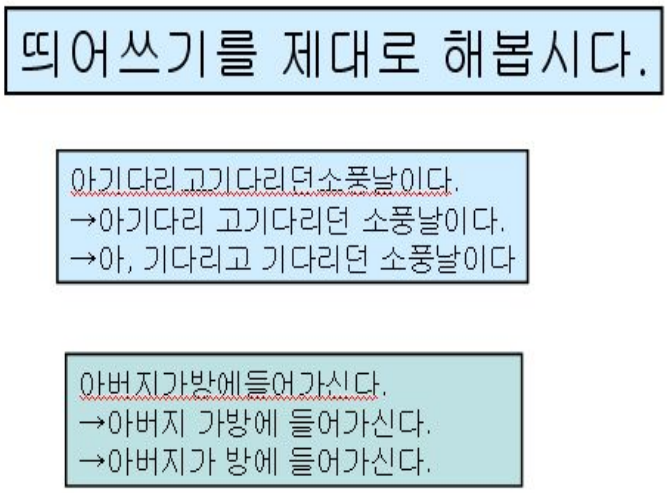
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사전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Ⅴ. 인터넷 국어사전을 이용한 띄어쓰기 교육의 실제

박영목의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한 띄어쓰기 교육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9학년 1학기 생활국어 교과서의 2단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보여주며 띄어쓰기에 맞게 글을 고치는 활동이 나와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의 심화학습 형태로 띄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국어사전의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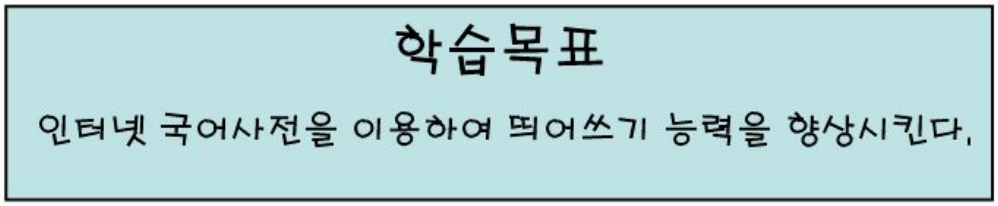
1. 목표 설정

1단계 목표 설정 단계는 교사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학습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다. 인터넷 국어사전의 활용법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교사는 파워포인트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국어사전을 링크시켜 전개하도록 한다. 먼저 띄어쓰기를 무시하여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하여 뜻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그림 5-1>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띄어쓰기를 잘못한 예 보여주기

그 후 띄어쓰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해준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띄어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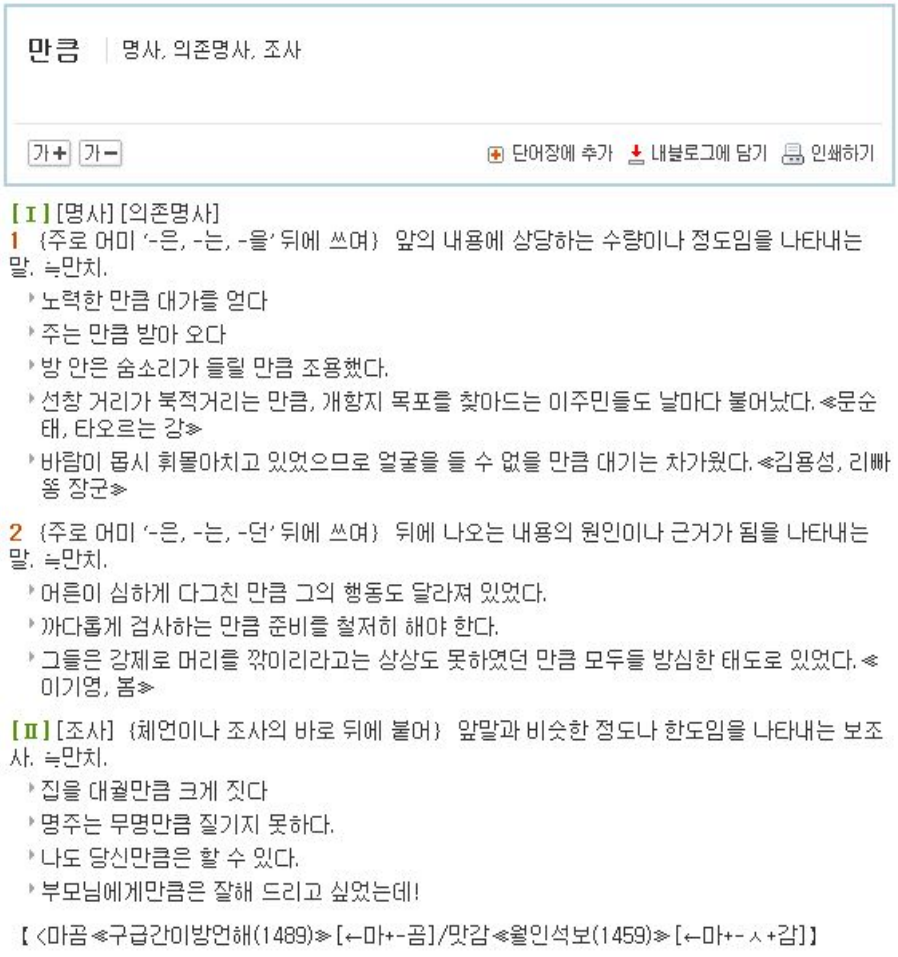
<그림 5-2>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학습목표 제시

2. 기본 학습

이 단계에서는 기본 개념을 지도해야 하므로, 지식의 제공이 중요하다. 인터넷 국어사전을 실제로 검색하기에 앞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제공하는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띄어쓰기 여부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쉽게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다.

<그림 5-3> 네이버의 한글 맞춤법 규정 항목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창에 단어 '만큼'을 입력한 후 검색 결과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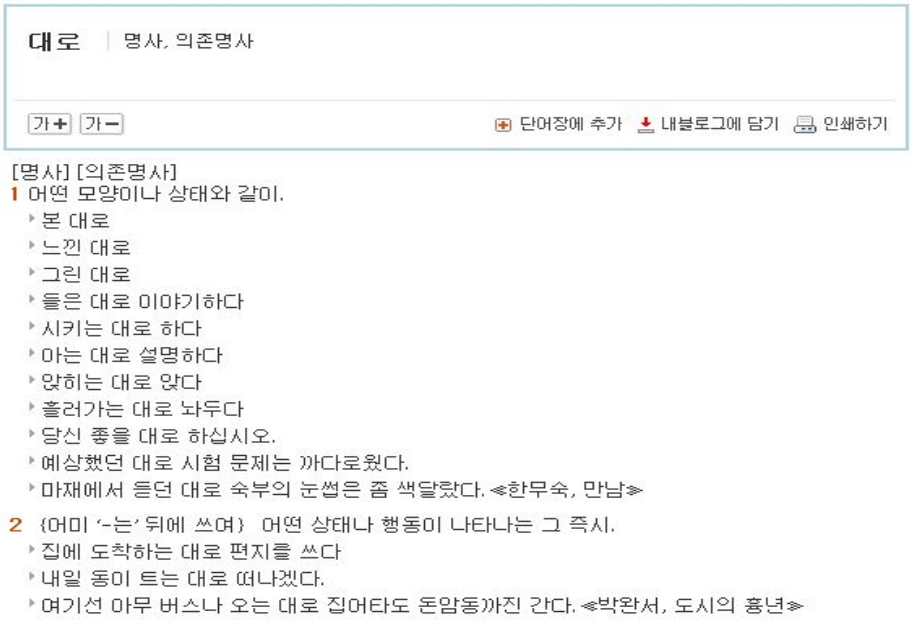
<그림 5-4> 네이버 국어사전의 '만큼' 검색 결과

검색 결과를 보며 국어사전을 통해 단어를 검색해보면 우선 품사가 제시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준다. 그리고 '만큼'의 경우 조사와 의존명사 두 가지의 품사로 나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의 띄어쓰기 규정에서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씀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준다. 그리고 검색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서 의존명사와 같이 앞 단어와 띄어 쓰는 경우에는 사전에서 '~뒤에 쓰여'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며, 조사와 같이 앞 단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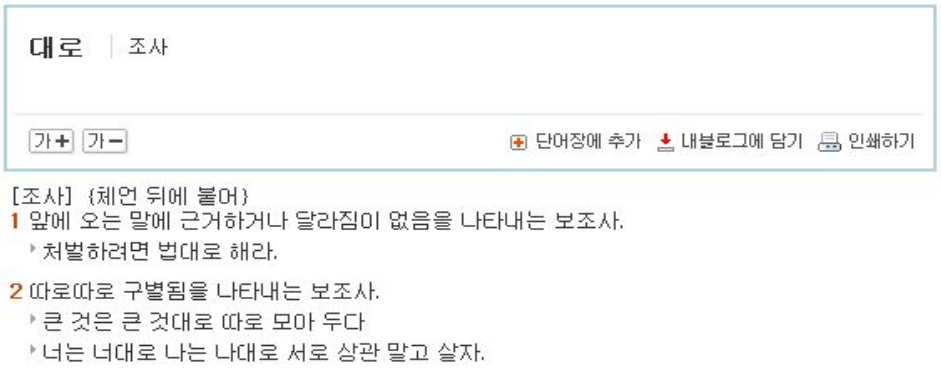
붙여 쓰는 경우에는 '~뒤에 붙어'라는 설명이 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예문 목록을 살펴보면서 '만큼'이 의존명사로 쓰일 때와 조사로 쓰일 때의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며 이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

3. 탐구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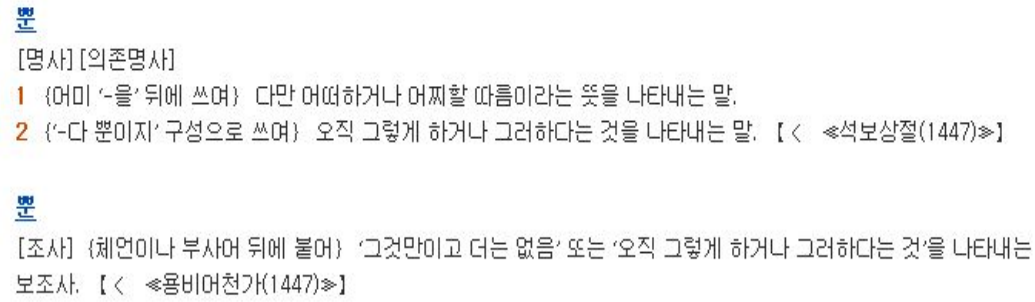
이 단계는 개념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교사가 시범을 보인 대로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도록 한다. 우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 후 교사가 '대로'와 '뿐'을 검색해 보도록 지시한다.



<그림 5-5> 네이버 국어사전의 의존명사 '대로' 검색 결과



<그림 5-6> 네이버 국어사전의 조사 '대로' 검색 결과



<그림 5-7> 네이버 국어사전의 '뿐' 검색 결과

4. 발전 학습

발전 학습 단계는 이해된 내용에서 다양한 사례를 적용해 보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교사가 학습지를 나누어 준 뒤 학생들이 인터넷 사전을 통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을 검색해 보고 사전의 예문 목록을 참고하여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여 응용력을 키우도록 한다. 이때 학습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확히 제시해 주어 작성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인터넷 국어사전을 통하여 밑줄 친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인하여 O,X 표시를 한 후, 인터넷 국어사전의 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단어를 이용하여 3문장을 작성하시오.

예)나는 할수 있다. (X)
*영수는 할 수 없다.
*그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것이다.

1. 나는 천 원 밖에 없다. ( )
*
*
*

2. 하늘이 맑아 남산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진다. ( )
*
*
*

3. 지수를 만난지도 꽤 오래되었다. ( )
*
*
*

4.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라. ( )
*
*
*

5. 공부만 하던 미주조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 )
*
*
*

6. 그 책을 다 읽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 )
*
*
*

<학습지>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띄어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지

5. 평가

평가 단계에서는 앞에서 한 활동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학습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한다. 띄어쓰기 능력 향상에 있어 인터넷 국어사전의 유용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에 대한 예고를 하며 마친다.

Ⅶ. 결 론

현재의 교육현장에서는 띄어쓰기 교육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된다. 교육과정에서 띄어쓰기 지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은 모두 11개의 항목에 불과하다. 띄어쓰기의 다양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턱없이 부족하며, 띄어쓰기에 대한 원칙과 허용 규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띄어쓰기 지도는 소홀히 여겨지고 있으며, 대부분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띄어쓰기를 잘못할 경우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폰의 문자 사용으로 인하여 점점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띄어쓰기 학습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정보 사회, 학습자 중심, 창의적 활동'이다. 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학습 매체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서는 사전의 사용을 매우 강조하게 되었다. '창의적 활동'에서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의 창의적인 활동을 중시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띄어쓰기 학습을 자

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인터넷 국어사전은 인터넷 사용 도중 언제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기존의 종이 사전에 비해 검색이 매우 쉽고 빠르다. 또한 인터넷 국어사전의 활용을 통해 띄어쓰기 능력 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어휘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국어사전을 비교해보고 그 중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유익하다 할 수 있는 네이버 국어사전의 활용 방안을 소개해보았다.

이와 같은 인터넷 국어사전을 통해 인터넷 사용 도중 수시로 필요한 단어의 띄어쓰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띄어쓰기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띄어쓰기의 기본 개념에 대해 학생들에게 확실히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에서는 띄어쓰기 교육의 비중이 매우 적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띄어쓰기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숙희(2001), 인터넷과 수업, 교육과학사

강인애(2003),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강혜원(2002),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곽병선(1998),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

김서희(2005), 인터넷 중국어 사전의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류연동(1997), 띄어쓰기 능력 실태 조사를 통한 국어 지도 방안,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박성호(2001), 한글의 띄어쓰기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 논문

박영목 외(2001), 국어과 교수학습론, (주)교학사

박은숙(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띄어쓰기 사용 실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박지언(2006), 중학생의 띄어쓰기 사용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배홍태(1991), 받아쓰기와 띄어쓰기의 수업 실제, 《어문학교육》13, 한국어문 교육학회

서정임(2006),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작문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손은경(2003), 띄어쓰기 실태 및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신미나(2001), 초등학생의 띄어쓰기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대 석사학위 논문
신희진(2005), 사전을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엄은영(2004),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국어의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유지연(2004), WBI를 활용한 띄어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공주교대 석사학위논문
이성재(2005), 홈페이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과학 수업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효과검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은영(1999), 띄어쓰기 문제의 대안적 연구, 부산외국어대 석사학위 논문
이주희(2005), 게임 활동을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대 석사학위 논문
이창원(1997), 초등학교 아동들의 띄어쓰기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이창원(2000), 띄어쓰기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 석사학위 논문
이현애(1998), 국어 띄어쓰기 사용 실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장승두(1999), 소집단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띄어쓰기 능력 신장방안,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전영신(2006), 탐구 학습 모형을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조문제(1971), 띄어쓰기 문제, 《국어국문학》 51, 국어국문학회
조문제(1976), 띄어쓰기의 실태에 따른 지도방안의 연구, 《국어교육》 27, 한국어교육학회
채혜영(2004), 시험지 채점하기를 통한 띄어쓰기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한상미(2002), 학습자 자율성에 기초한 한국어 어휘 교육 사례 연구-인터넷 사전과 인터넷 자료 검색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황경수(2007), 국어학: 효과적인 띄어쓰기에 대하여, 《새국어교육》75, 한국국어교육학회

ABSTRACT

A Study on How to Use the Online Korean Dictionary to Improve the Word Spacing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Bang, Hyo Su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recent trend in writing is that people no longer space words properly or at all when they are composing text and e-mail messages due to the limited space available for writing and their desire to write at a faster pace. This trend can be attributed to the phenomenal rise of Internet and cellular-phone usage. If the word spacing is incorrect, however, the meaning can become unclear and the recipient of the message can misinterpret its meaning. Considering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teach students the correct way to space the words in what they are writing. Most schools, however, fail to teach word spacing effectively, and to make matters worse, in some schools, even the administrators and teachers themselves are not aware of the importance of word spacing when writing. To support the current word-spacing-related teaching that is much disregarded in the current school curriculum, this study aims to show how word spacing can be taught through the use of online Korean dictionaries.

In Chapter II of this study,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 relation to word spacing in actual classes are examined. In Chapter III, the need for online Korean dictionaries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word spacing ability in writing is discussed. In Chapter IV, the representative online Korean dictionar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find the factors that can boost learning in terms of word spacing in writing. Based on the foregoing, Chapter V presents a way by which such dictionaries can be used by focusing on the online Korean dictionary of the portal site *Naver*, which is currently considered the most useful and effective online dictionary in improving word spacing learning.

The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learn word spacing in writing when the teacher simply lectures on it. If the students, however, will make it a habit to check the online Korean dictionary whenever they are not sure of how to space words while they are writing, they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word spacing skills. Although this thesis has many limitations, the teaching of word spacing skills through the use of an online Korean dictionary, which is suggested in this thesis, can boost the students' word spacing skills, whose importance is much disregarded in the current school curriculum.